

‘중앙선리연구원·교육불사’가 두 축

‘새로운 도약’ 기치 내건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선학원이 ‘새로운 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정체성 확립에 나선 데에는, 이대로는 선학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재를 확보하고 불교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이렇게 선학원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변해야 산다’는 이사장 정일 스님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됐다.

1일 대전에서 열린 중진 분원장 회의에서 정일 스님과 만나 그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해 들었다.

▲ ‘새로운 도약’을 천명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1921년에 발족한 선학원은 만공, 한영, 동산, 청담, 석주 스님 등 근·현대 선지식들이 몸을 담고 한국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조계종의 모체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 스님들의 사상을 선양하지 못했고 따라서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근래 들어 선학원 내부에서조차 무사안일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은 내년 선학원 설립 70주년을 기점으로 선학원의 뿌리를 되찾고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도약’을 내년 선학원 설립 70주년을 기점으로 선학원의 뿌리를 되찾고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가?

“큰 틀에서 보면 중앙선리연구원 개원과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 두 가지를 축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핵심은 ‘교육 불사’다. 다시 말해 인재를 양성하고 선학원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10월에 개원하는 중앙선리연구원에서는 5명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선학원 설립조사들의 사상을 조명하면서 <선학원사> <선학원 설립조사 문집> <정화운동사상사> <근현대 불교사상>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또 정기 학술회의를 통해 선학원의 역사를 조명하고, 선을 중심으로 한 전통 수행법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보급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연구위원은 우제선(동국대)·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조성택(고려대)·남동신(덕성여대)·이주형(서울대) 교수로 이미 구성

돼 활동하고 있다.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불교관련 박사는문 △불교원문 번역 △외국인 학생 불교 관련 연구자 지원 사업 등 세 개 분야에서 5명을 선발해 매년 총 6천만원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자 선발은 중앙선리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된다. 조만간 선발 요강을 전국 대학에 배포할 것이다.

▲ 인재양성에 비중을 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소장 학자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된다. 말 그대로 소장학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역량이 있는 소장 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해 선학원의 인재로 활용할 생각이다. 선학원이 도와주고 인하고는 여기에 달려있다. 선학원은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중앙선리연구원 운영비와 소장학자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년에 약 1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선학원은 포교원을 포함한 모두 600여 개의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60여 분원장이 뜻을 같이 하면서 후원금을 냈고, 신도들도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원장들이 동참할 예정이고 신도 후원회도 결성될 예정이다.

▲ 전통수행법을 현대에 맞게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선학원은 간화선을 모태로 하고 있다. 원전을 연구해 간화선을 쉽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선리진작(禪理振作)’이라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오늘날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을 재해석하고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다른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화선과 비교하는 방식은 아니다.

▲ 전통수행법을 현대에 맞게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선학원은 간화선을 모태로 하고 있다. 원전을 연구해 간화선을 쉽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선리진작(禪理振作)’이라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오늘날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을 재해석하고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다른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화선과 비교하는 방식은 아니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조계종

‘북한산’ 점점찾는 과정서 혼선

정부

불교신문이 보도한 대로 청와대의 ‘조계종 총무원장 정치적 보호 운운’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이 같은 파문은 왜, 어떤 경로를 거쳐 파생됐을까.

정치적 보호 운운 발언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파문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문 경위와 배경은 대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동이 3일 일반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이후 사태는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등이 ‘진실’을 가리자고 버티고 있어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스님을 협박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환경연대 조직실장 법륜 스님은 “8월 27일 법장 스님과 수경·현응 스님이 만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법장 스님이 Y씨를 거론하며 상당히 불쾌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드러난 문제점

이번 파문으로 불교계는 ‘정치적 보호 운운’ 발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우선 북한산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이번 파문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산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동노선 불가리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 과잉반응을 보였고 그로인해 관계자들간에 불협화음이 돌출되었다는 것은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불교계의 주도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산은 이후 불교환경운동뿐 아니라 불교 이미지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통되더라도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불교계의 주장이 진실성과 역사성이 있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 사건 개요

불교신문이 8월 30일 발행한 신문(9월 2일자)에서 ‘청와대, 총무원장 스님 협박’이란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청와대 왜 이러나’ 제목의 사실로 다뤘다가 조계종 총무원의 지시에 의해 신문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교신문은 머릿기사와 사실을 바꿔 이날 저녁 신문을 다시 발행했다.

불교신문 사장 현을 스님, 부사장 성관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주간 현고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등 불교신문 임원진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월 1일 사직서를 냈다.

불교신문은 문제의 기사에서 “여권의 한 정치인사가 청와대 고위 책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문제에 대한 불교계 협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정치적 보호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불교환경연대의 성명 내용을 전하며 “청와대 고위직 인사의 총무원장 협박 발언” 어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29일 ‘불교계는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보호를 거부한다’는 제목 아래 “지금 어떤 세상인데 군사독재 시절에도 쉽게 할 수 없는 협박을 종교계에 하는가”라며 청와대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조계종 총무원장은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청와대 고위인사가 정치적 보호 운운했다는 불교환경연대 성명서 내용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일 발표한 2차 성명에서 “1차 성명에서 발표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사건 배경 및 경과

이번 파문은 왜 일어났을까. 현재

“총무원장 정치적 보호 운운” 파동의 전말

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조계종이 점점을 찾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연대 성명에서 거론된 여권의 한 정치인사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종교특보를 담당했던 Y씨로, Y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북한산 문제와

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수경 스님과 현응 스님도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개입했느냐고 하더라. 아직도 많은 사실을 왜 꾸며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총무부장 성관 스님도 “대화 도중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총무원·청와대 부인, 환경연대는 2차 성명

관련자들 증언 엇갈려 ... 과잉대응? 진실? 확인 안돼

“문제해결에 도움 안되는 상처 남겨” 여론

관련해 정부와 조계종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Y씨는 “8월 20일과 28일 사이 총무원장 스님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해법을 찾자는 양측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 측도 “Y씨에게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측과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한 적도 없으며, Y씨는 청와대 측과 북한산 문제를 협의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Y씨가 불교계 인사로서 나름대로 (불교계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청와대 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Y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 협박 발언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 Y씨는 “협박 운운은 말도 안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Y씨는 또 “불교계

정치적 보호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며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Y씨와 청와대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완전히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 수경 스님은 “Y씨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총무원장 스님을 정치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청와대가 총무원장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차장옆비)

5호선 동대문순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성 입장 매해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임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눈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 [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 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1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 10시